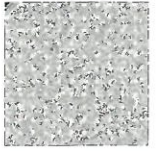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96호 2022년 5월 29일(다해)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청소년 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1-11

화답송 | 시편 47(46),2-3,6-7,8-9(◎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 에페 1,17-23<또는 히브 9,24-28; 10,19-23>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루카 24,46-53

영성체송 |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허영엽 마리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가정의 달, 5월은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부모님을 여윈 사람들에게는 마음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를 떠올리면 밤중에 비스듬히 앉아 소리 죽여 묵주기도를 하시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본당 연명회에서 시신을 깨끗이 닦아주는 봉사자 하셨습니다. 동네 근처에 귀신이 산다는 등, 많은 소문이 있었던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움막 안에는 방물장수를 하는 할아버지와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손녀가 살았습니다. 움막 조금만 가까이 가도 코를 찌를 듯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머니는 지저분한 움막을 청소하고, 손녀를 씻기고, 밥도 챙기고, 이불 빨래도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병이라도 옮기면 어쩌냐고 걱정하면 그런 말 하면 못쓴다고 제 말머리를 자르곤 하셨습니다. 몇 년 후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소녀에게 어머니는 대세를 주셨고, 이윽고 숨을 거두자 소녀의 시신을 닦고 한복을 입혀 소박한 장례도 치러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한밤중에 어머니는 큰 대접에 소주를 한가득 채워서 마시고 어두운 부엌에 철버덕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어린 것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게마저 버림받은 스무 살도 안된 장애인 소녀의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는 아마 저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이들을 많이 돌본 덕분에 그 유족 중에는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는 사랑의 노래였고, 그 노래는 계속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삶을 증거하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 두 손과 두 발로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증거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교회의 문을 두드렸냐고 질문을 받으면 주변 신자들의 삶이 보기 좋고 아름다워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동만큼 힘 있고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해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말씀할 것입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난 잘 안다.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다 잘 안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이제 내 품 안에서 편히 쉬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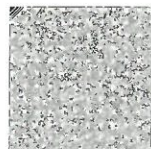


이과수폭포 브라질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루카 24,51)



이과수에 선명한 무지개가 새겨집니다. 성경 속 무지개는 하느님 약속의 표지이며, 우리에게 무지개는 세상과 천상을 잇는 매개의 상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승천은 우리를 떠남이 아닙니다. 천상과 세상 사이의 길을 직접 열어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그분께서는 천상에 오르시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홍진호 제노 | 첼리스트

하느님으로 향하는 길

2016년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오케스트라 활동, 예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강의까지 종횡무진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회인으로서 첼로 연주자 생활은 음악에만 집중하면 그만이었던 유학생의 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당시에만 해도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던 터라 낯설고 고된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날아가 실내악 연주자 과정 입학시험을 보고 학교 등록까지 하는가 하면, 마침 리브콜이 있었던 체임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기로 결심하고 독일로 되돌아가는 등 정착하지 못해 방황하는 나날들을 꽤 긴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한국에서 정착하도록 도와주었던 건 다름 아닌 종교의 힘이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필요했던 저는 오랜 과제를 풀듯 마침내 성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당을 드나들고(?) 하느님을 가까이 느끼며 살았지만, 정식으로 교리를 듣고 세례를 받지 않았던 저로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6개월의 예비자 교리를 통해 들었던 다른 교우들의 삶의 이야기와 하느님 말씀은 혼자서 감당하고자 했던 고통과 시련이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느님의 말씀을 접할 때 얼마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지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리 기간 동안 출결 사항으로 불안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신 담당 수녀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지요. 마침내 2018년 6월 17일 저는 제노(ZENO)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아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여전히 출결 사항이 형편없는 부끄러운 신자

지만 기쁘고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르며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는 중입니다.

신앙을 찾고 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클래식 음악만을 향해 걸어가던 중에 만난 낯선 세계의 음악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밴드의 음악까지 하게 됐지요. 클래식 악기, 클래식이라는 음악 장르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던 JTBC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우승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욱 사랑하게 해줬고, 첼로 연주자로서의 책임감 또한 무겁지만 기쁘게 감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말씀의 이삭' 코너에 글을 기고하도록 제안을 받았을 때 신앙심이 턱없이 부족한 제가 감히 후보에 글을 실어도 괜찮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솔하게 털어놓았던 5월 한 달간의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작은 행복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컷 묵상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

순명 은총
사명 신앙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9

신앙은 성모님처럼!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한 후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 경험에 근거해 하느님의 개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된 분이라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루카 1,42 참조) 하느님 구원 계획이 극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 두 여인의 적극적인 응답과 협력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신앙이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수난 전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 말씀이라면, 하느님 뜻이 분명하다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천사의 말에 몹시 놀랐고, 두려워하였으며,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루카 1,29-30) 그래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였다.”(루카 1,29)라고 전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시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느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주님 탄생 예고(=수태고지, 성모영보)를 들으셨을 때 성모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라고 백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 하느님 은총을 가득히 받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느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 순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게 된 것처럼, 마리아도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 주고, 동시에 마리아와 믿는 이들의 미래가 어떠할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Immanu) ‘하느님(EI)이십니다. 인간과 함께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은 구약에서도 하느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판관 6,12; 1역대 22,11,16 참조) 마리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확약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는 마리아의 응답이었고, 동시에 믿는 이들과 교회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님 탄생 예고 중에 이루어진 마리아의 “예!”를 설명하며 구약의 하와와 신약의 마리아, 죄와 구원, 불순종과 순종, 죄와 자유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인류 역사 안에서 마리아의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교회현장 56항 참조)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 구세주 탄생 사건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한 처녀를 선택 하셔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여종을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계획과 은총에 마리아처럼 신앙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느님께 비롯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당신 혼자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시지만, 인간이 순응하고 협력한다면 우리는 은총을 체험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교회와 성인들 사이에
통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프라 안젤리코, The Forerunners of Christ with Saints and Martyrs
(성인들과 순교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선구자들)

아닙니다. 해당 구절은 세 가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1) 거룩한 교회 2) 보편된 교회 3) 모든 성인의 통공. 이렇게 세 가지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통공은 교회와 성인 사이의 통공이 아니라, 성인들 사이의 통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라틴어 원문상 ‘거룩한 것들의 공유’라는 뜻도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문장의 구조를 오독하면서 비롯된 오해입니다만, 여기에 더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반면, 성인들은 하느님 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추측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로 동떨어져 있으니 믿음으로 통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교회’란 지상에 있는 교회만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또, ‘성인’도 성인품에 오른 천상의 모범적인 영혼만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 그럼 성인은 누구를 말하죠?

여기서 ‘성인’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포괄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을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초세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성도’라 불렀습니다.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성인’은 바로 이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2코린 1,1)라는 구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번역된 단어와 달리, 원문의 단어는 같기 때문입니다.

! 그럼 우리 신자들끼리 통공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상 교회의 그리스도인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순례하는 교회’인 지상 교회, ‘정화 중의 교회’인 연옥 교회, ‘천상의 교회’인 천국 교회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사이에 통공한다는 것은 지상과 연옥, 천국의 모든 영혼들이 서로 통공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셋으로 구분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굳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 딸린 모든 사람은 그분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인 교회로 뭉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형제들과 나그네들(우리 지상 교회의 신자들)의 결합은 조금도 중단되지 않으며, 더욱이 교회의 변함 없는 신앙에 따르면, 영신적 선익의 교류로 더욱 튼튼해진다.”(「교회헌장」 49항)

! 통공은 어떻게 하나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통공, 즉 신도들이 공로를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로나 하느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는 기도와 같은 행위는 유효하다.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로서뿐만 아니라 애덕의 효과를 통한 공로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말이죠. 기도, 선행, 희생 등으로 서로의 구원을 위해 공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통해 우리가 기도 받을 수 있고, 위령 성월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매 미사 때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기도를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특집]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2021.3.19~2022.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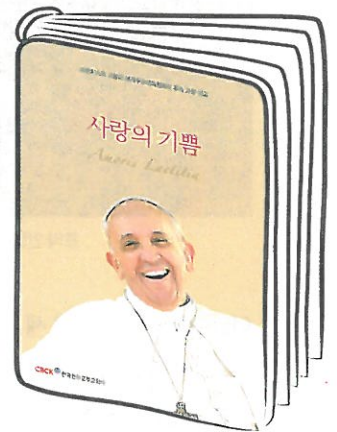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반포 5주년을 맞으며 시작한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에 우리 교회는 혼인과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특별히 오늘날 가정이 처한 실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따라 풍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는 올해 6월 제10차 세계가정대회로 마무리 됩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자료제공: 사목국 교육지원팀 · 바티칸 뉴스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

'가정'을 주제로 했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의 결과에 따른 후속 문서로 가정 사랑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재발견하도록 돕고 혼인과 가정에 담긴 영성을 알려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제10차 세계가정대회 2022.6.22~6.26

"가정의 사랑: 성덕의 소명이자 길"

가정을 위한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당신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고
인내와 친절로써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소서.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작은 교회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가
끝나는 6월 26일까지
매 미사 전이나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세계가정대회 10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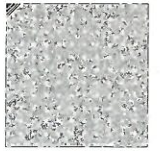
6월 26일 12시 주교좌 미사

(정순택 대주교 주례)

이날 각 본당에서는 모든 가정 공영미사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지향으로 교중 미사

교황님께서 제안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비결



첫 번째

“~해도 될까요”

이 말은 타인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기 위해 필요한 표현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겁니다. 대신 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해도 될까요?’ ‘양해를 구해요.’ ‘제가 무엇 무엇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고마워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가정에서 나누는 많은 도움과 봉사에 대해 서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늘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피입니다.

세 번째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표현은 가장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안해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잘못하는 데 반해, 그런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가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표현, 잊지 마세요

‘~해도 될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만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세 가지 표현을 잘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잘 지내는 겁니다.



CONDIALE
DIALE
NO 2022

계막 미사

경동대성당

1)

체의 성화와
가 봉헌됩니다.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될 때,

가족애가 진지하고 깊고 순수할 때,

용서가 불화를 지배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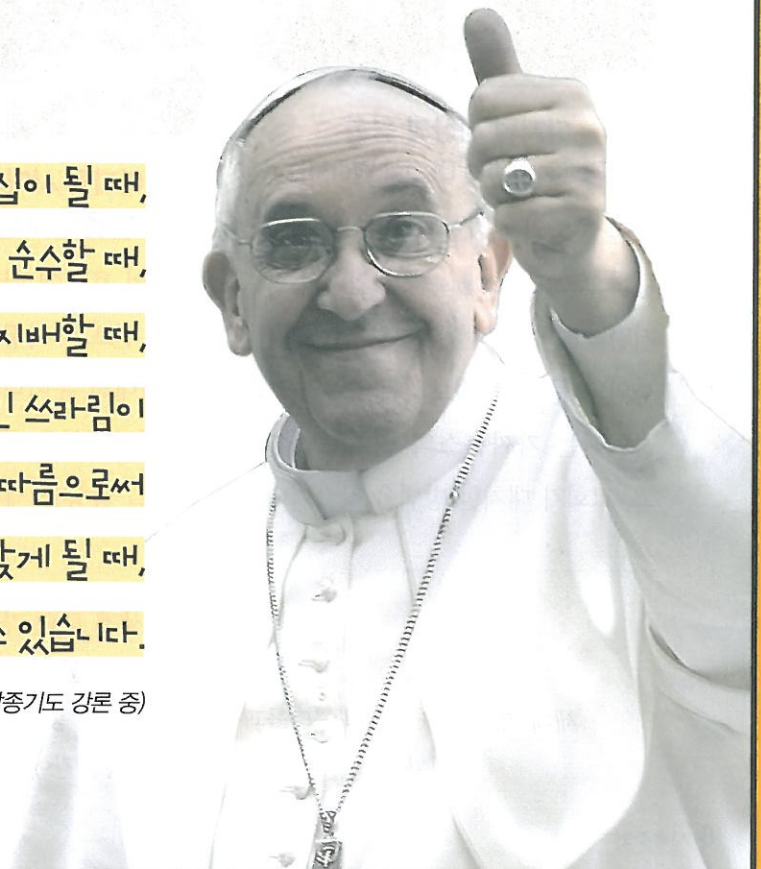
살의 일상적인 쓰라림이

따뜻한 애정과 하느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가라앉게 될 때,

가정 안에서 진정한 친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성가정 축일 삼중기도 강론 중)



세계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모임, 2022 시그니스 세계총회

디지털 세상의 평화

(Peace in the Digital World)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이제 인간의 귀와 눈의 역할은 물론 머리까지 지배할 만큼 막강해졌습니다. 시그니스(SIGNIS)는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는 가톨릭 언론인과 커뮤니케이터들의 국제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사와 신문사, 출판사의 가톨릭 교우회들을 중심으로 방송, 신문, 출판, 광고, 영화 등에서 종사하는 미디어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스는 대륙별 총회를 해마다 열고, 세계총회는 4년마다 갖습니다. 2022년 시그니스 세계총회는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2022 시그니스 세계총회 집행위원회 제공



디지털 세상의 평화
(Peace in the Digital World)

이번 총회의 주제는 『디지털 세상의 평화』(Peace in the Digital World)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겪는 인간 소외의 문제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늘어나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살피고, 교회가 대처할 방법을 찾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복음 선포
국제 언론인 포럼, 국제 청년 포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복음 선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세대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신앙생활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이버 세상의 주님과 함께
메타버스 시그니스 세계총회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에 익숙한 MZ세대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만나고 소통하며, 가톨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세계총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한국의 주요 성지를 순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을 통한 세계 평화 구현에 대한 연대감을 형성하며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후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조직입니다.

세계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과 함께하는 이번 총회는 한국 천주교회와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릴 기회입니다. 신자 여러분들도 직접 또는 가상공간에서 함께 하시며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5월 29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제56차 ‘홍보 주일’입니다

교회 도서 출판과 신문 방송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들의 발전을 위해 홍보 주일 2차 현금을 실시합니다. ‘홍보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5월 29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미사

올해는 서울대교구 제11대 교구장이셨던 고(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 애쓰셨던 추기경님의 말씀과 행적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아래와 같이 교구장과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기념 미사를 봉헌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때, 곳:** 6월 5일(성령 강림 대축일) 낮 1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5년 6월 3일 이종국 바오로 신부(31세)
- 1983년 6월 1일 이치열 안토니오 신부(29세)
- 2020년 5월 24일 최선용 야고보 신부(77세)

교구청알림

서울대교구 화상수업

주제: 내안에 나야, 이제는 웃어도 돼
 때: 5월31일~8월30일 매주(화)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명동 직장인 금요일미사 안내

때: 매주(금) 12시15분
 곳: 명동대성당 포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본당 수도자 연수

주제: 포스트 코로나, 본당 공동체의 화합
 때, 곳: 6월14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개별 신청
 6월7일(화) 마감 / 회비 없음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2년 청년 피정

주제: “성 · 생명 · 사랑의 길” / 신청마감: 6월19일(일)
 때: 7월1일(금) 19시~7월3일(일) 15시(2박 3일)
 곳: 명동대성당 내 여성센터 게스트하우스(1인 1실)
 주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한국티스타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병원사목위원회 온라인 유튜브 미사

내용: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서 미사가 봉헌됩니다
 때: 매주(금) 오후 3시(실시간 미사)
 미사지향 신청: camillus.seoul@gmail.com
 유튜브 검색 → ‘서울대교구 병원사목위원회’

가톨릭 영유아(만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미사 /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6월11일(토) 오전 10시~12시30분, 온라인비대면교육(ZOOM) / 5월30일(월) 10시~6월7일(화)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속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6월2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 봉사국) /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문의: 02)727-2407, 2409

2022 빈민사목위원회와 공단기가 함께하는

‘함께 푸는 꿈(CUM) 희망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대상: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 · 조손가족 보호대상, 자립준비청년 등 / 교육과정: ‘공단기’ 공무원 전직렬 온라인 강의 지원
 신청기간: 4월18일~5월31일 / 문의: 02)777-7261

‘가톨릭신자앱’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본당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차세대 본당양업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새로운 양업시스템에 맞춰 교우들께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가칭 ‘가톨릭신자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신자앱’을 통해 기도 생활, 성지방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가톨릭페이 기능을 통해 앱으로도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하고, 미사 지향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우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인 ‘가톨릭신자앱’. 이 ‘가톨릭신자앱’에 교우 여러분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기간: 5월15일~6월5일 / 선정인원 및 상금: 1인 30만원
 참가방법: 굿뉴스 홈페이지 홍보마당 → 홍보게시판에서 참가(<http://code.catholic.kr/MXo3im>)
 문의: 02)2269-0419(내선 3번) 전산정보실

항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1만원
 곳: 여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지도: 이승구 신부 / 회비: 1만원

| | |
|-----|-----------------------|
| 직장인 | 6월5일(일) 13시30분~16시30분 |
| 일반인 | 6월6일(월) 13시30분~16시30분 |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박성환 개인전: 1전시실
 푸른그림전: 2, 3 전시실
 전시일정: 6월1일(수)~6일(월)

시와 문학으로 만나는 하느님(홍보위원회 특강 안내)

대상: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100명)
 때, 곳: 6월14일~7월5일 매주(화) 14시~15시30분, 교구청 501호 / 회비: 8만원(본인 부담 4만원, 교구 지원 4만원)
 강사: 최대환 신부, 신달자 · 정호승 · 김해선 시인
 문의: 02)751-4104 / 신청: 네이버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신청 안내

| 날짜 | 코스 | 비고 |
|----------|---|---------------------------|
| 6월7일(화) | 1코스 말씀의 길 | |
| 6월11일(토) | 1코스 말씀의 길 | |
| 6월21일(화) | 2코스 생명의 길 | 3코스 일부 (당고개 순교성지까지) 순례 |
| 6월29일(수) | 저녁팻 순례길(예화동성당,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낙산성곽길, 광희문성지) | 오후 7시부터 순례 청년, 직장인 환영 |

신청: 5월30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문의: 02)2269-0413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 전 구간 도보순례(3시간 이상),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및 예비신학생 6월 모임

- 1)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6월3일(금) 14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123
- 2)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6월 모임

| 학년 | 때 | 곳 | 문의 |
|----|---------------|-------------|---------------|
| 중1 | 6월5일(일) 오전9시 | | 010-9254-2123 |
| 중2 | 6월12일(일) 오전9시 | 성신교정 대성당 | 010-7640-2126 |
| 중3 | 6월12일(일) 오전9시 | | 010-9261-2123 |
| 고1 | 6월5일(일) 오전9시 | 성신교정 대관 세관상 | 010-9972-2123 |
| 고2 | 6월12일(일) 오전9시 | 성신교정 대관 세관상 | 010-2742-2123 |
| 재향 | 6월11일(토) 오후2시 | 성신교정 대성당 | 010-2577-2123 |

|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곳 | 문의 |
|--------------------|-------------------------|-----------------------------|---|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6월5일(일) 10시 |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
|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 수시 |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 65 | 0507-1306-1505 |
|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 수시 |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6월11일(토) 14시~12일(일) 13시 | 본원(경북 왜관) | 010-8353-2323 |
|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 수시 | 수녀원 |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
|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 5월29일(일) 14시 | 아프리카잠비아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 010-3679-7198 강파아 수녀 |

인준단체 알림

모임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성독)

때: 6월8일·15일·22일·29일 매주(수) 14시~16시 / 회비: 10만원
 곳: 씨튼영성센터(서울) / 지도: 허성준 신부 외
 문의(접수): 010-4731-2468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6월4일(토) 17시(미사),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회센터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의 사제와 수도자들의 개인 영적 지도 / 홈페이지: <http://center.jesuits.kr>
 때: 8월31일~12월21일(17주 과정), 매주(수) 오전 10시~12시 / 문의(접수): 02)3276-7733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6월 매주(토) 6월11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젊은이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루하)

매주 금요일 저녁,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 기도회와 미사로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 | | |
|-------|-----------------|-------------------|
| 제103차 | 6월17일(금)~25일(토) | 문의: 061)373-3001, |
| 제104차 | 7월15일(금)~23일(토) | 010-3540-9001 |

가정선교회 6월 행사

미사, 식수준비, 방역수칙 준수 / 문의: 010-6281-8626, 010-5674-8511, 010-2367-2297, 02)777-1773 대표

| | |
|--------------|---|
|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 6월1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 첫 토 성도 신심미사 | 6월4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한철호 신부, 박효철 장사, 이현주 회장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접수): 010-9099-2337(www.jesumaum.org)

| | |
|----------------|-----------|
| 예수마음기도 4박5일 | 6월13일~17일 |
| 예수마음기도 8박9일 | 6월13일~21일 |
| 이나시오 영신수련 8박9일 | 6월13일~21일 |
| 생명력살리기 워크샵 | 6월3일~5일 |
| 분노다루기 워크샵 | 6월10일~12일 |

예수수도회 6월 피정

곳: 메리워드 센터(서울 오류동)

| | | |
|------------|---|---------------------|
| 청년주말 피정 | 6월11일(토)~12일(일) 35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010-2314-1645 |
| 3545 피정 | 6월17일(금)~19일(일) 35세~45세 미혼 여성 | 카카오톡 채널: 빛더하기_예수수도회 |
| 생활 피정 |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 수련(12주간) 미혼 여성 / 문의: 010-7485-1964 | |
| 2박3일 침묵 피정 | 6월24일(금)~26일(일) | 010-9608-0208 |

미혼 여성을 위한 개인 주말 피정

곳: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주최) 본원(사당동)
 문의: 010-5920-6367 기헬레나 수녀

비대면 심리독서모임

심리적 자기이해·영적성장애 관심있는 분(8명)
 때: 7월 매주(월) 9시~12시20분 / 문의: 010-7241-2236
 주최: 톡쟁포교베네딕도수녀회대구수녀원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구, 기도모임) 및 미사

내용: 말씀(영성교육)과 파견미사 / 문의: 02)753-8765
 때: 6월12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할인(전화 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에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가톨릭여성연합회 원어민 영어회화 초급반 모집

때: 매주(수) 10시~12시(주1회, 2시간)
 곳: 가톨릭회관(명동) 513호 / 문의: 02)778-7543
 회비: 3개월 12만원(연회비 별도)

성음악레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6월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 오후반 14시·금요일 저녁반 20시, 삼동역 본회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서스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특강

주제: 가톨릭 사상사(교회의 대사회적 가르침·교황문헌을 중심으로) / 강사: 한홍순(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때: 6월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성 정하상 기념경당(B2) /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30%할인)
 선착순 접수 /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 사무실

| | | | |
|------|--------|-------|--------|
| 6월3일 | 사회교리 1 | 6월10일 | 사회교리 2 |
|------|--------|-------|--------|

모집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회원 모집 / 문의: 010-3217-8235

대상: 만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 첫모임: 6월13일

가톨릭 남성 합창단 울바우 단원 모집

45년 전통의 가톨릭 남성합창단 울바우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10-5107-9525 부단장
 대상: 성가대 유경험자 우대 입단 오디션
 때: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
 곳: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중립동)

미사

성공률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6월3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7층 / 문의: 02)929-2977

오순절평화의마을 6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6월2일(목) 11시(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6월4일(토) 오전 10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끈뽀우일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6월4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때: 6월3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갯세마니 첫 목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온전한 사랑' 말씀의 치유를 바라는 신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때: 6월2일 19시~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경동)

인내

씨튼영성센터 심리상담소(성복동)

내용: 우울, 불안, 공황, 분노, 대인관계 등
 대상: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 문의: 010-5113-3005 박영미 수녀, 010-9016-1918 이선자 수녀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간병인 상주) / 1522-9415

울성꽃동네노인요양원(구원외집)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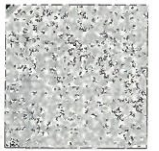
분야: 요양보호사, 조리원(수시 모집) / 기숙사 사용 가능
 문의: 043)879-0225, 0238(www.kkotnoin.or.kr)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0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 6월5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자양2동성당 관리직원 모집

인원: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성실하고 건강하신 분
 업무: 시설 관리, 미화, 기타 방호 업무 등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6월15일(수)까지 이메일(cmike7c@seoul.catholic.kr) 및 우편·방문(우 05106, 서울시 광진구 독성로 58길 81(자양동) 자양2동성당 사무실)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접수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읽기 좋은 신앙 서적



신간 도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관상 기도를 위한
가장 좋은 입문서

토마스 키팅 지음 | 16,000원

기도란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키팅 신부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을 넘어서 하느님께 온 존재를 열 때에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널리 읽힌 관상 기도 입문서로 하느님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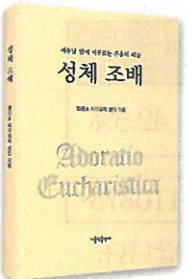
신간 도서

침묵의 대화

침묵으로 열리는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위한 지도

토마스 키팅 지음 | 14,000원

관상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이 책은 관상 기도를 시작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변화와 여러 어려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 알아야 할 영적인 단계와 기도의 자세를 배우며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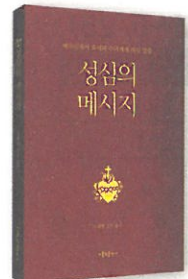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성체 조배

“성체 조배로 보낸 시간은 일생 중
가장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다.”

알폰소 리구오리 성인 지음 | 13,000원

알폰소 리구오리 성인의 말씀으로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성체 조배의 순서를 비롯하여 기도 방법과 마음가짐을 자세하게 알려 줍니다. 이번 예수 성심 성월에는 성체를 바라보며 하느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흠숭을 표현해 보세요.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성심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요세파 수녀에게
친히 남기신 ‘말씀’ 모음집!

이재현 옮김 | 10,000원

이 책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 성심 수녀회의 요세파 수녀에게 들려 주신 말씀을 엮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성심께 의탁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껴 보세요.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이름 없는 순례자 (가톨릭클래식)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최익철, 강태용 옮김 | 18,000원

자비송으로 알려진 이 짧은 ‘예수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깨달음을 구했던 한 순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순례의 여정을 따라가며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을 배워 이번 예수 성심 성월에는 늘 하느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되새겨 보세요.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예수 성심

예수 성심을 따를 때
찾아오는 삶의 기쁨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8,800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따르는 방법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담은 묵상집입니다. 다가오는 예수 성심 성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따뜻하고 진솔한 가르침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제2231(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락회장 : 지명국(비오로) 010-5512-4450

| | | | |
|-------|--|---------|----------------------|
| 주일 미사 |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 유 아 세 례 |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 평일 미사 |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 혼 인 면 담 |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
| | | 성모신심미사 |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5월 31일(화) 저녁 7시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 예비신자 입교식 : 6월 5일(주일) 11시 미사

| | | |
|-----|-------------------|------|
| 교리반 | 교리 시작 날짜 | 장소 |
| 수요반 | 6월 8일(수) 오후 8시~ | 교육관 |
| 주일반 | 6월 12일(주일) 오전 9시~ | 304호 |

※ 7월 10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6월 4일(토) 오전 10시

◎ 입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6월 5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4/27~5/25).

| 성 명 | 세 례 명 | 구역/반 |
|-----|-------|------|
| 송연주 | 올리바 | 1-1 |
| 한정희 | 세레나 | 2-5 |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6월 12일(주일) 교중미사 후 도서실

※ 매월 둘째 주일 교중미사 후 전입교우 환영식이 있습니다.

◎ 청년 에니어그램 일일피정

에니어그램 테스트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나와 타인 속에서 발견하는 피정

대상 : 연희동성당에서 활동중인 20~30대 청년

일시 : 6월 12일(주일) 오후 1시~6시

참가비 : 15,000원

신청 & 문의 : 청년회장 (010-5125-8040)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모집파트 : 보컬(남/여), 건반, 드럼 등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열린미사 : 매월 마지막주 주일 오후 6시

문의 : 스테파노 단장 (010-2829-3856)

※ 열린미사는 밴드찬양을 통해 봉헌하는 청년미사입니다.

◎ 청년 레지오(셋별 Pr.) 단원 모집

대상 :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청년

회합(기도) : 주일 오후 7시 30분 / 207호

문의 : 안나 단장 (010-9524-8988)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 301호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오늘은 홍보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5. 22)

| 총세대 | 책정세대 (책정율) | 납부세대 (납부율) | 2021년 책정율 | 2021년 납부율 |
|-------|-------------|-------------|-----------|-----------|
| 2,097 | 789 (37.6%) | 731 (34.9%) | 43.8% | 42.5% |

| | | |
|---------|------|---------------|
|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32,337,100원

◎ 감사헌금(5월 16일~22일)

조영훈 일십만원 김옥녀 오만원

함영동 일만원 박미혜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부활 제6주일)

교무금 6,588,000원

주일헌금 5,035,600원

헌미헌금 2차헌금 2,085,000원

성모의 밤 꽃봉헌금 3,002,500원

| | | | | | | | |
|----|-----|----|----------|----|---------------|----|-----|
| 입당 | 141 | 봉헌 | 212, 340 | 성체 | 176, 502, 151 | 파견 | 245 |
|----|-----|----|----------|----|---------------|----|-----|

환 호 소 리 가 운 데 하 느 님 이 오 르 신 다 -
나 팔 소 리 가 운 데 - 주 님 이 오 르 신 다